

比較文學 觀點에서의 中國古典小說 研究*

閔 寬 東**

<目次>

| | |
|-----------------------------|-----------------------------|
| I. 序 論 | IV. 比較文學 觀點의 중국고전소설 研究方法 |
| II. 國內 중국고전소설 研究史 | V. 研究成果와 향후 研究方向 |
| III. 比較文學 觀點의 중국고전소설 研究史 | VI. 結 語 |

I. 序 論

약 20여 년 전에 필자는 孫楷第의 《中國通俗小說書目》(廣雅出版社)을 보고는 書誌學과 板本學의 연구방법에 흥미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후 일본의 중문학자 大塚秀高가 만든 《增補中國通俗小說書目》(汲古書院)을 보고는, 순간 한줄기 瑞光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大塚秀高는 이 책에 중국소설의 고서관본은 물론 일본에 소장된 고서목록까지 수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득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에 소장된 중국고전소설의 고서목록을 따로 정리한 것이 있나 찾아보았으나, 국내 각 대학 도서관에서 출판한 전체 고서목록만 확인될 뿐 따로 정리한 것은 없었다. 순간 이것을 꼭 내손으로 정리해야겠다는 욕심이 발동하였다. 그 후 부지런히 국내 중앙도서관 및 20여 개 대학도서관을 다니며 목록작업을 하였고,

* 이 논문은 2010년 한국연구재단의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 역량강화사업비)의 지원을 받은 연구이다.(NRF-2010-322-A00128).

** 慶熙大學校 中國語學科 教授(慶熙大學校 比較文化研究所)

또 그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박사학위논문을 쓰게 되었다.

그 후 20여년 가까이 이 분야에 연구를 지속하면서 연구의 범위도 크게 확대되었다. 즉 국내 수용된 중국고전소설의 유입론·평론·판본론·번역론·출판론·연구사론 등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연구를 구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연구의 심도가 더해질수록 자료의 부실이 문제가 되었다. 즉 국내 소장된 중국고전소설의 古書板本目錄은 당시 불과 20여개 도서관을 위주로 만들었기에 전반적으로 자료가 빈약했다. 대대적인 수집정리 작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5~6년 전부터 한국연구재단의 토대연구과제에 <한국에 소장된 중국고전소설과 희곡판본의 수집정리와 해제>라는 제목으로 연구계획서를 꾸준히 신청한 결과 2010년 9월에 四戰五起라는 四字成語에 딱 부합하게 5번의 신청 끝에 선정되기에 이르렀다.¹⁾

본 논문은 프로젝트가 1년 6개월이 진행된 시점에서 본 과제를 재점검해 보고 이 분야의 연구개황과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관점에서 기획하였다. 먼저 이 분야 연구자들의 연구현황과 성과 및 연구방향을 소개하고, 또 필자의 주 연구분야인 중국고전소설의 국내 유입연구·평론연구·판본연구·번역연구·출판연구·연구사연구·수용과 영향연구 등의 연구방법론과 제반문제를 비교문학 관점에서 검토해 보고자한다.

II. 국내 중국고전소설의 研究史

국내에서 중국고전소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광복이후 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조선시대에도 간혹 문인들이 중국고전소설에 대해 언급한 것이 있었으나 이는 단편적인 지식의 소개에 불과하기에 본격적인 연구로 보기는 어렵다. 또 日帝時代에는 梁建植이나 金泰俊같은이가 중국

1) 본 프로젝트는 한국연구재단의 토대연구로 선정되었으며 약 6억원의 예산에 총 3년 과제로(2010.9.01~2013.8.31까지) 13명의 연구원(연구책임자, 일반공동연구원 3명, 전임연구원 4명, 연구보조원 5명)을 두고 현재 연구가 진행 중.

고전소설에 대한 간략한 소개의 글이 있으나 이것 또한 현대적 관점에서 논문으로 분류하기는 무리가 따른다.

필자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해방 이후 중국고전소설에 대한 최초의 논문은 1949년에 나온 洪應杓의 <韓國古代小說의 發達과 中國小說의 影響>[《國文學》(公州師大), 제1호, 1949.8.]으로 추정된다. 또 국내 최초의 중국고전소설에 관한 석사학위 논문으로는 1956년 李鐘殷의 <中國小說이 韓國小說에 미친 影響>[연세대 석사논문, 1956.2.]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당시 논문들은 대부분 국문학 연구 차원에서 나온 비교문학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순수 중국고전소설에 대한 석사학위 논문으로는 1959년 金永浩의 <晚淸小說의 研究>[서울대 석사논문, 1959.3]가 최초이고, 또 최초의 국내 박사학위 논문으로는 張基權의 <傳奇小說研究>[서울대, 1969]로 보여 진다. 그 외 국외(대만)의 최초 석사학위 논문은 1961년 丁範鎮의 <唐代傳奇及其影響>[臺灣師大 碩士論文, 1961]이며, 국외(대만)의 박사논문은 李慧淳의 <水滸傳研究>[臺灣師大, 1972]로 확인된다.²⁾

중국고전소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지 60여년이 흘렀다. 광복이후 최근까지 중국고전소설에 대한 연구논문은 대략 2800여 편이 발표된 것으로 추정된다.³⁾ 또 現在 일선에서 중국고전소설을 연구하는 학자층도 대략 350여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된다.

광복이후부터 최근까지 중국고전소설에 대한 연구사를 시대별로 분류하면 크게 3세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광복이후 1980년 이전을 제1세대로, 1980년대부터 1995년까지를 제2세대, 1995년 이후 최근까지를 제3세대로 분류할 수 있다.

제1세대는 대략 광복이후부터 1970년대 말까지 분류할 수 있다. 이 시

2) 拙著, 《중국고전소설의 출판과 연구자료 집성》, 아세아문화사, 2008년. 106-107쪽 참고.

3) 이 근거는 拙著, 《中國古典小說在韓國的研究》(中國上海 學林出版社, 2010年 9月. 118쪽)에서 2008년까지 발표된 2488편의 논문에 2009년과 2010년의 연구논문을 추정하여 산정한 것이다.

기의 연구 경향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분류⁴⁾되는데, 전자는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국문학자들로 李家源·朴晟義·丁奎福·李慶善·李相翊 등이 있고, 후자는 대만 유학과 학자들과 국내에서 정통으로 중국소설을 연구한 학자들로 장기근·丁範鎭·李慧淳·全寅初 등이 있다. 이들은 비교문학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제시하며 중국소설연구의 방향성 제시와 연구풍토를 조성한 선구자들이기도 하다.

제2세대는 대략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로 중국소설 연구에 양적 확대와 질적 확대가 급속히 이루어진 시기이다. 특히 대만 유학자들과 국내 연구자들이 합류하면서 소설학계는 새로운 학풍을 만들며 빠르게 발전하였던 시기로 洪淳孝·崔奉源·정동국·徐貞姬·崔溶澈·吳淳邦·李騰淵·徐敬浩·鄭在書·박재연·조관희·김장환·민관동 등 수 많은 학자들이 대거 등장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소설 자체 작품연구뿐만 아니라 소설비평이론 및 비교문학이론 등 다양한 연구 방법론이 도입되어 연구풍토가 다양화 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던 시기로 평가된다.

제3세대는 199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로 분류할 수 있다. 1992년 대만과의 단교와 중국과의 수교로 인하여 留學地가 대만에서 중국으로 바뀌었고, 또 1996년 이후부터 중국 유학생들이 대거 귀국하면서 학계는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연구방법론에 있어서도 다소 고식적인 전통연구 방법을 탈피하여 서구의 문예이론 등을 과감하게 도입하는 한편 우리만의 연구방법에 대한 고민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곧 1990년대는 신구세대의 연구자들이 적절하게 어우러져 서로에게 자극을 주고받으며 연구 분위기를 一新하는 역할을 하였다.⁵⁾ 그러나 연구층의 저변확대가 크게 이루어진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반면 급진적인 量的 팽창으로 인하여 質的인 문제점도 惹起하였다.

최근까지 약 2800여 편이라는 엄청난 양의 논문 발표되었다. 지금까지

4) 이 분류는 최용철의 <한국에서의 중국소설 연구의 現況과 課題>(《中國學報》 제38집, 1998.6. 123쪽)에서 분류한 방식을 활용함.

5) 조관희, <한국에서의 중국소설 연구>, 《중국소설논총》제7집, 1998.3. 37쪽.

수집한 논저목록(석·박사 학위논문 포함)을 근거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작품을 순서대로 살펴보면《紅樓夢》·《三國演義》·《水滸傳》·《西遊記》·《剪燈新話》·《三言》·《儒林外史》·《金瓶梅》·《聊齋志異》·《世說新語》순으로 집계된다.⁶⁾

이상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작품은 《홍루몽》으로 《삼국연의》연구보다 많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또 전반적으로 四大奇書 및 《剪燈新話》위주로 연구가 이루어진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Ⅲ. 比較文學 觀點의 中國고전소설 研究史

중국고전소설에 대한 연구논문 2,800여 편 가운데 비교문학 관점에서 접근한 논문이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된다. 사실 초창기 중국고전소설에 대한 연구는 비교문학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그렇다고 완전한 비교문학의 이론에 입각한 연구라고도 할 수 없다. 사실 중국고전소설은 국내에서 “소설”이라는 개념이 정립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유입되어 무조건적 수용현상이 일어났기에 국내 고소설 연구에 있어서 중국고전소설에 대한 연구는 필연적인 선행조건이 되었다. 그리고 광복이후 최초로 연구를 주도한 학자들은 대부분이 국문학자들이기에 국문학 연구의 일환에서 나온 副産物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해 보인다.

연구논문을 살펴보다도 朴晟義의 韓中影響과 《금오신화》·《전등신화》의 비교연구나, 丁奎福의 韓中影響과 《전등신화》·《서유기》·《태평광기》·《평요전》 등 비교논문에서 연구의 경향이 확인되듯이 한중소설에 대한 비교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또 이러한 연구 가운데 작품내용을 상호 비교하는 내용연구 즉 소설의 내용에 의거한 한중소설의 비교연구가 주류가 되었다.

6) 拙著, 《중국고전소설의 출판과 연구자료 집성》(아세아문화사, 2008년). 119쪽 참고(2007년 상반기까지의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것임)

이러한 비교문학적 연구방법에 동기를 부여한 이가 바로 김태준이다. 김태준은 《朝鮮小說史》(1932년)에서 중국소설의 전래와 영향에 대한 자료를 상당부분 언급하고 제시하였다. 또 그의 중국소설에 대한 식견은 이 가원·박성의·정규복 등 많은 후학들에게 자극과 연구동기를 부여한 것으로 사료된다.

대략 1950~1980년대까지 중국소설에 대한 연구방법은 작품내용에 의거한 한중소설의 비교연구가 주축이 되었다. 좀 더 자세히 분석하면, 광복 이후 초창기 연구를 주도한 국문학자로는 李家源·朴晟義·丁奎福·丁來東·李明九·李慶善·李相翊·李慧淳·金鉉龍·韓泳煥·禹快濟 등이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는데, 이들의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李家源은 李朝傳奇小說과 比較研究, 朴晟義은 《금오신화》와 《전등신화》비교연구, 丁奎福은 《전등신화》·《서유기》·《태평광기》·《평요전》 등에 대한 한중 비교연구등 다양한 논문이 나왔다. 그 외 丁來東은 韓中影響 관계 연구, 李明九는 韓中小說 비교연구, 李慶善은 《삼국연의》비교연구, 李相翊은 《삼국연의》·《전등신화》·《서유기》에 대한 비교연구, 李慧淳은 《수호전》과 《삼국연의》 등의 비교연구, 金鉉龍은 《태평광기》의 비교연구, 韓泳煥은 《금오신화》와 《전등신화》비교연구, 禹快濟는 《列女傳》의 비교연구 등에서 많은 연구실적을 이루었다. 이처럼 연구의 대부분은 작품내용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논문들이다.

이상의 자료에서 확인이 되듯 광복이후 초창기에는 국문학자들에 의하여 연구가 주도되었으나 1990년대에 박재연·최용철·민관동·김장환 같은 중문학자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면서 연구를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전에도 장기근·정범진·전인초·정동국 같은 학자들도 간헐적으로 연구논문이 발표되었으나 본격적인 연구는 1990년대로 잡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왜냐하면 1990년대는 새로운 연구방법론과 접근방식이 도입되면서 연구에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새로운 연구방법론의 도입에 방향성을 제시한 이가 조희웅과 유탁일이라 할 수 있다. 즉 曹喜雄은 <낙선재본 번역소설 연구>⁷⁾라는 논문

에서 서지자료에 대한 조사와 소개를 하면서 작품의 내용분석에서 서지분석 쪽으로 관심을 돌려놓았다. 또 유탁일은 《韓國 文獻學 研究》⁸⁾ 등 많은 論著에서 서지학적 분석방법과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論著는 중국소설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면서 상당수의 연구논문이 발표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자료 소개의 論著는 단순한 소설 스토리에 의거한 비교 연구에서 書誌學的 接近이라는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중국소설판본의 자료조사와 발굴 및 고증학적 분석방법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된 시기는 대략 1990년대로 볼 수 있다. 1993년 박재연의 <조선시대 중국통속소설 번역본의 연구>(한국외대 박사학위논문)는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즉 서지학적 관점에서 소설의 판본자료와 평론자료 및 번역본의 古語 출현상태에 근거하여 판본의 유입시기와 번역시기를 고증하는 방식의 연구방법이다. 이러한 고증학에 입각한 연구 방법론은 매우 치밀하고 과학적인 연구방법으로 후대 많은 연구자가 이러한 모델을 따라 많은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또 1994년 민관동의 <中國古典小說流傳韓國之研究>(대만 문화대 박사학위논문)는 중국고전소설의 국내유입과 평론 및 판본과 번역 등의 제반 문제를 총체적으로 수집 정리하여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연구방식은 기존의 자료에 새로운 자료를 총괄하고 정리하는 방식으로 박재연이 微視的 觀點에서의 접근방식이라 하면 본 연구는 巨視的 觀點에서의 접근 방식이라 할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와 박재연의 미시적 관점에서의 연구성과로는 《中朝大辭典》을 들 수 있다. 즉 조선번역본 중국고전소설과 희곡 등에 나오는 古語彙를 이용하여 고어사전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곧 《中朝大辭典》이다. 또 민관동의 거시적 관점에서의 접근결과 중국고전소설의 국내 유입론·

7) 《국어국문학》 제62-63합병호, 1973.

8) 유탁일, 《한국 문헌학 연구》(아세아문화사, 1989). 그 외 《完板坊刻小說의 문헌학적 연구》(學文社, 1981).

판본론·번역론·출판론·연구사론 등을 총괄하여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이 분야 연구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주었다.

중문학자 가운데 이 분야의 연구자로는 崔溶澈·박재연·金長煥·閔寬東 등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오순방·정영호·이재홍·김명신·金瑛 등도 이 분야의 연구대열에 합류하면서 많은 논문과 연구방법도 다양화 되고 있다. 즉 1950~1980년대까지의 연구대상은 주로 《太平廣記》·《剪燈新話》와 《三國演義》·《水滸傳》·《西遊記》 등의 사대기서 위주로 비교연구가 주축이 되었으나, 그 후 1990년대로 오면서 他 作品에 대한 관심이 넓어지기 시작하였고 특히 1990년대 이후 중국소설 전공의 중문학자들이 대거 가세하면서 《紅樓夢》·《世說新語》·《西·東漢演義》·《鏡花緣》 등 全 分野로 연구범위가 확대되었고 연구방법도 다양화 되었다.

특히 한국에 소장된 희귀본 판본과 출판 및 번역소설에 지대한 관심이 일면서 이 분야의 연구영역은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그중 樂善齋 번역본과 희귀자료 발굴에 있어서 박재연의 연구가刮目할만하다. 박재연은 <中韓翻譯文獻研究所>를 운영하며 이미 백여 종의 번역본을 校註하여 출판하였고 또한 지속적으로 희귀본 발굴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고전소설 번역본에 나오는 어휘를 이용하여 만든 《中朝大辭典》은 학계의 지대한 공로로 인정된다. 그리고 최용철은 번역본 《紅樓夢》과 續書에 대한 연구, 그리고 희귀본 《鍾離葫蘆》·《剪燈新話》·《剪燈餘話》·《金鰲新話》 등의 발굴에 왕성한 연구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 金長煥은 《世說新語》와 《태평광기》에 대한 비교연구와 자료 발굴에 많은 실적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태평광기》 20여권을 全文翻譯하여 출판하는 大成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들이 미시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여 많은 성과를 낸 반면, 민관동은 중국고전소설의 國內 流入·板本·出版·翻譯·評論 등 受容史的 문제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총괄하여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이등연은 한중 소설 비교연구상의 교류 문제에 대한 연구와 한국을 배경으로 한 중국소설에 대한 연구, 오순방은 기독교 관련 소설자

료 발굴과 번역소설 비교연구, 정옥근은 중국고전소설의 전파와 영향관계 연구, 손지봉은 韓中說話 비교연구, 정영호는 《경화연》과 한국제재 중국 근대소설에 대한 연구, 김명신은 《충열협의전》 등 번역소설 비교연구, 이재홍은 국내 번역된 역사류소설 연구, 金瑛은 《남송연의》 등 번역소설 비교연구 등에서 많은 연구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⁹⁾

IV. 比較文學 觀點의 中國고전소설 研究方法

1. 패러다임의 전환

얼마 전까지 국내의 중국고전소설에 대한 연구는 단지 중국자료를 근거로 하여 中國小說史의 틀 안에서 고찰되는 경향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외국인으로서 他者[中國]의 문학을 연구하는 根本目的과 意義에 대해서는 줄곧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 그 문제점을 제기하며 그 의미를 찾고자 고민해 왔었다.

근래 들어 국내 학자들의 연구시각과 방법론이 확장되면서 새로운 연구 방향에 대한 모색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곧 연구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연구 패러다임의 전환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자료 발굴에서 그 변화의 싹이 트는 경우가 많았다. 새로운 자료의 발굴은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낳고, 이 새로운 시각과 관점이 모여 결국 전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며 자연스럽게 연구방법론의 전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비교문학 관점에서의 중국문학에 대한 연구방법론 가운데,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 가능성이 농후한 분야가 바로 한국에 소장되어 있는 漢籍關係資料들이다. 중국·대만·일본·미국 그리고 유럽등지에 소장된

9) 拙著, 《중국고전소설의 출판과 연구자료 집성》(아세아문화사, 2008). 117-118쪽 참고.

漢學資料들은 이미 발굴과 연구가 대부분 완료된 상태이나 국내에 소장되어 있는 漢學關聯 文獻資料는 아직도 전문 연구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것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최근 漢學界 전반 특히 중국·대만·일본의 연구자들이 한국 소장 문헌자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이 유도 여기에 있다.

漢學關係 문헌자료는 국내의 중국고전소설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중국 내 소설연구자들의 관심과 주목을 끌고 있는 분야이다. 2010년 국내외 학계 및 언론매체에서 여러 차례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 박재연 發掘本 《三國志通俗演義》 판본(이양재 소장본)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 준다. 이 판본은 조선시대(1560년경) 출간한 금속활자본으로 2010년 3월 중국 南京의 발표회에서 중국학자들의 비상한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또 2010년 8월에는 한국중국소설학회와 성균관대 동아시아 학술회가 공동 주최한 학술대회에는 30여명의 외국인이 참석하고 발표하는 대 성황을 이루기도 하였다. 이러한 열기는 현재까지도 중국의 관련 학술 사이트와 다른 학술대회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뜨거운 주제로 부상하였으며, 급기야 최근에는 대만 및 일본의 학자 사이에서도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다.

그 외에도 대만학자들에 의하여 국내 奎章閣에서 발굴된 “三言兩拍一型” 중의 하나인 《型世言》이 있는가 하면,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굴된 세계 최초의 《홍루몽》 완전번역본 등은 세계 唯一本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은 판본들이다. 그 외에도 《刪補文苑植橘》이나 《百家公案》 등의 희귀본 판본들이 국내에서 속속 발굴되고 있어 한국학자는 물론 중국 및 일본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 이미 우리 문학의 일부가 되어버린 《삼국연의》·《수호지》·《서유기》·《서한연의》·《列國志》 등 수많은 중국소설들은 일찍이 국내에 유입되어 번역과 번안 등으로 출판되었으며 심지어 우리의 고소설로 재창작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유입된 소설작품들에 대한 총체적인 書誌學的 자료수집과 분석 및 연구방법론의 정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 이러한 자료들은 중국고전문학 연구자

들뿐만 아니라 우리 고소설 연구에 있어서도 상당히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2. 비교문학적 연구방법

(1) 연구방법

이 분야의 연구방법으로는 대략 유입연구·평론연구·판본연구·번역연구·출판연구·연구사연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流入 研究 : 작품에 대하여 언급한 최초의 문헌기록과 현존하는 판본을 근거로 최초유입을 추정하고 작품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관련서적들은 《고려사》·《조선왕조실록》·《五洲衍文長箋散稿》·《惺所覆瓿藁》 등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문헌기록을 중점적으로 활용하며, 또 국내도서관 등에 소장된 판본을 근거로 작품의 유입시기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② 評論 研究 :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의 문헌에 언급된 중국고전소설 작품에 대한 기록을 근거로 연구한다. 즉 우리의 고전문헌기록에는 작품에 대한 유입기록이나 평론기록 및 번역과 출판 등에 대하여 언급한 기록들이 많은데 이러한 단편적인 기록은 중국고전소설에 대한 평론 및 流入 등에 많은 端緒를 제공한다. 또 중국의 문헌기록과도 비교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초창기 중국고전소설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작품내용이 위주가 된 비교연구가 주류를 이루어왔다.

③ 板本 研究 : 국내 소장된 판본을 수집 정리하여 판본의 유입 및 번역·출판 등 서지학적 검토 및 연구에 활용한다. 우선 전국 주요 도서관 및 서원·사찰 등의 古書目錄에 제시된 중국고전소설의 판본목록을 蒐集整理하여 중국본과 국내본으로 분류하고, 이 작품들의 서지학적 분석작업을 시행한다. 또 중요한 판본은 직접 도서를 열람하여 그 판본의 가치를 분석하는 작업을 중점적으로 한다.

또 기존의 국내 소장 중국고전소설 판본연구에서 더 나아가 彈詞·鼓詞 등을 아우르는 희곡 판본 작업까지 그 범위를 확장시켜야 한다. 특히 彈詞와 鼓詞 및 희곡은 비록 정통적 문학 장르에서는 천시되었으나, 민간과 진

보적인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유행하였고 또한 같은 제재의 작품들이 소설과 희곡 등으로 창작됐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는 상당한 교류가 있었다. 이처럼 소설과 희곡이 특수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실과, 탄사와 고사 또한 소설의 초기 형태 작품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조사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은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연구임을 의미하기에 함께 수집 및 연구의 대상으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통속소설에 편중되어 문언소설 작품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일부 탄사·고사 등이 목록화되어 있지만 정확한 조사와 총체적인 자료 수집 및 정리는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와 정리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많은 시간과 연구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넓게 보면 곧 우리 국학의 한 분야이다. 즉 중국고전소설에 대한 판본·출판·번역 자료에 대한 토대연구는 중국문학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고소설 연구자에 있어서도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④ 翻譯 研究 : 국내에 유입되어 번역되어진 중국고전소설 작품에 대한 연구로 당시 번역기법 및 번역양상 등을 연구한다. 번역 작품중에는 크게 번역류와 변안류 및 재창작류로 구별하는데 특히 조선시대에 국내에서 번역되어진 중국고전소설은 대략 68종이 있다. 이러한 작품에 대한 번역 양상과 번역기교 및 번역 방법 등 번역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현재 확인된 68종의 번역본 소설에 대한 서지학적 자료수집과 분석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 분야는 현재 박재연의 연구실적이 두드러진다.

⑤ 出版 研究 : 국내에서 출판되어진 중국소설의 출판상황과 서지학적 연구를 통하여 당시 판본의 가치와 출판문화 등을 연구한다. 특히 조선시대에 출판되어진 중국고전소설은 대략 22종이 있으며 이들 작품중에는 당시의 출판본이 이미 망실된 판본도 있지만 상당수는 현존하고 있다. 아직 발굴하지 못한 작품을 발굴하는 작업과 이미 발굴된 작품을 서지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연구하고 그 출판의 목적과 의미를 검토한다.

⑥ 研究史 研究 : 중국고전소설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연구실적과 성과를 역사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역대 연구자의 논문과 저서를 목록화하여 종합정리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나온 자료는 시대별 연구의 변천사를 살펴볼 수 있는 방향관이 될 뿐만 아니라 후학들에게도 좋은 연

구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방법론에 의거하여 총체적인 자료조사를 이끌어 낸다면 비교문학적 한중고전소설 연구는 이러한 토대자료를 근거로 시너지효과는 물론이고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사료된다.

中國古典小說과 희곡에 대한 版本의 수집범위는 국립도서관 및 박물관과 국내 주요 대학의 도서관을 기본으로 하고, 기타 서원(향교)·문화재연구원·기타 기업체 도서관·기타 연구소·불교사찰 및 개인 소장본을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V. 研究成果와 향후 研究方向

1. 연구성과

조선시대 국내에 유입된 중국고전소설의 수량은 2001년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280여 종으로 확인되었으나 2007년 새로운 자료발굴에 힘입어 무려 50여 종 이상이 더 늘어난 330여 종이 되었고,¹⁰⁾ 최근의 전면적인 자료조사를 통하여 총 460여종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 국내 번역본으로는 68종이, 국내 출판본으로는 22종이 확인되고 있다.

다음은 국내 유입된 판본 가운데 소설판본의 국내 존재여부와 문헌기록상의 기록여부 등을 근거로 하여 유입된 소설을 목록화한 자료이다.

- (1) 유입목록(文言小說目錄[209]과 백화통속소설목록[255]-총 464종)
[밑줄()은 현재 국내 판본은 없고 문헌기록만 있는 존재하는 작품]

* 문언소설(209)

당대이전-26 : 《山海經》·《穆天子傳》·《西京雜記》·《燕丹子》·《神

10) 민관동, 《중국고전소설의 전파와 수용》(아세이문화사, 2007). 14-43쪽 참고.

異經》·《說苑》·《新序》·《列女傳》·《搜神記》·《搜神後記》·
《博物志》·《述異記》·《靈鬼志》·《拾遺記》·《繪圖歷代神仙傳》
·《世說新語》·《洞冥記》·《十州記》·《漢武帝內傳》·《東方朔傳》
·《列仙傳》·《高士傳》·《吳越春秋》·《續齊諧》·《漢武故事》·
《齊諧記》

당대작품-15: 《因話錄》·《北里志》·《續博物志》·《卓異記》·《獨
異志》·《遊仙窟》·《西陽雜俎》·《宣室志》·《傳奇六種》·《北夢
瑣言》·《玉泉子》·《尚書故實》·《朝野僉載》·《白猿傳》·《諾皇
記》

송원대작품-33: 《五朝小說》·《楊太真外傳》·《齊東野語》·《夷堅志》
·《梅妃傳》·《閑窗括異志》·《太平廣記》·《程史》·《溪蠻叢笑》
·《癸辛雜識》·《過庭錄》·《冷齋夜話》·《澠水燕談錄》·《皇明世
說新語》·《新刊鶴林玉露》·《涑水記聞》·《鬼董》·《睽車志》·
《鷄肋編》·《玉壺清話》·《王氏談錄》·《青溪弄兵錄》·《南村輟耕
錄》·《螢雪叢說》·《五色線》·《嚴下放言》·《資暇錄》·《歸田錄》
·《福壽全書傳》·《夢溪筆談》·《稗史》·《趙飛燕外史》·《嬌紅記》

명대작품-42: 《聘聘傳》·《廣博物志》·《續太平廣記》·《說郛》·《
太原志》·《覓燈因話》·《剪燈新話》·《剪燈餘話》·《西湖遊覽志》
·《野記》·《兩山墨談》·《花陣綺言》·《江隣幾雜誌》·《智囊補》
·《巨史》·《玉壺冰》·《古今說海》·《稗史彙編》·《何氏語林》·
《情史》·《稗海》·《鐘離葫蘆》·《花影集》·《效顰集》·《紅梅記》
·《北窗志異》·《五雜俎》·《國色天香》·《顧氏文房小說》·《訓世
評話》·《漢魏叢書》·《廣四十家小說》·《春夢瑣言》·《太平清話》
·《虞初志》·《顧玉川傳》·《林居漫錄》·《仙媛傳》·《富公傳》·
《迪吉錄》·《避暑錄話》·《山中一夕話》

청대작품-93: 《檐曝雜記》·《典故列女傳》·《猗園志異》·《艷異編》·
《挑燈新錄》·《四海堂全傳》·《客窓閒話》·《續客窓閒話》·《夢園
叢說(夢園叢記)》·《說閑飛龍全傳》·《見聞隨筆》·《遯窟譚言》·
《遯汕謾錄》·《忘忘錄》·《夢迹圖》·《景船齋雜記》·《無稽譚語》
·《鷗砭軒質言》·《甕牖餘談》·《溧陽消夏錄》·《埋憂集》·《子不
語》·《豆棚閒話》·《夜譚隨錄》·《夜雨秋燈錄(續錄)》·《燕山外史》
·《閱微草堂筆記》·《聊齋志異》·《女聊齋誌異》·《後聊齋志異》·
《兩般秋雨庵隨筆》·《分甘餘話》·《我佛山人筭記小說》·《庸閒齋筆

記》·《虞初新志》·《虞初續志》·《廣虞初新志》·《右台仙館筆記》
 ·《里乘》·《刪補文苑植橘》·《十一種藏書》·《海陬冶遊錄》·《諧
 鐸》·《增補記事珠》·《茶餘客話》·《質直談耳》·《螢窗異草》·
 《壺天錄》·《寄園寄所寄》·《道聽塗說》·《四夢彙譚》·《淞南夢影
 錄》·《宋人百家小說》·《新刻夢中錄》·《雨窗寄(記)所記》·《澆愁
 集》·《粵屑》·《梨花雪》·《秋坪新語》·《翼駟稗編》·《說鈴》·
 《香艷叢書》·《坐花誌果》·《池北偶談》·《池上草堂筆記》·《宋艷》
 ·《笑林廣記》·《此中人語》·《滄海遺珠錄》·《秋燈叢話》·《閒談
 消夏錄》·《海上群芳譜》·《吳門畫舫錄》·《玉鴛再合》·《歸田瑣記》
 ·《秘書二十一種》·《說冷話》·《三異筆譚》·《夢嚴雜著》·《板橋
 雜記》·《桃溪客語》·《多暇錄》·《浪迹續談》·《焦軒隨錄》·《北
 窗囁語》·《庸庵筆記》·《秋坪新語》·《餘墨偶談》·《定香亭筆談》
 ·《椒生隨筆》·《癡婆子傳》·《說鈴》·《因樹屋書影》

* 白話通俗小說 - 255

송원대작품-3: 《大宋宣和遺事》·《三國志平話》·《古本西遊記》

명대작품-74: 《三國志演義》·《後三國志》·《水滸傳》·《後水滸傳》
 ·《水滸後傳》·《續水滸傳》·《結水滸傳》·《西遊記》·《後西遊記》
 ·《金瓶梅》·《續金瓶梅》·《醒世恒言》·《拍案驚奇》·《型世言》
 ·《繪圖續今古奇觀》·《繪圖五續今古奇觀》·《繪圖今古艷情奇觀》
 ·《今古奇觀》·《封神演義》·《東周列國志》·《繪圖增像後列國志》
 ·《春秋列國誌》·《隋唐演義》·《繡像南北宋志傳》·《北宋演義》·
 《南宋演義》·《大唐秦王詞話》·《薛仁貴征東全傳》·《異說後唐傳三
 集薛丁山征西樊梨花全傳》·《三遂平妖傳》·《繡像東西漢通俗演義》
 ·《西漢演義》·《楚漢演義》·《東漢演義》·《殘唐五代史演義》·
 《皇明英烈傳》·《續英烈傳》·《開關演義》·《武穆王貞忠錄》·《北宋
 楊家將》·《新鐫玉茗堂批點按鑑參補楊家將傳》·《繪圖北方真武祖師
 玄天上帝出身全傳》·《新鐫批評出相韓湘子》·《繪圖評點女僊外史》
 ·《繪圖東西南北四遊記》·《新刻全像三寶太監西洋記通俗演義》·《東
 遊記》·《繪圖南遊記傳》·《醉醒石》·《西湖志》·《秘本風流才子白
 玉梨》·《孫龐演義》·《隋史遺文》·《隋煬帝艷史》·《禪真逸史》·
 《繪圖八仙出處東遊記傳》·《石點頭》·《禪真後史》·《盛唐演義》·
 《東晉演義》·《西晉演義》·《涿鹿演義》·《齊魏演義》·《楊六郎

傳》·《警世通言》·《覺世名言》·《西湖二集》·《弁而釵》·《昭陽
 趣史》·《一枕奇》·《浪史》·《貪歡報》·《雙劍雪》·《金粉惜》
 청대작품-178:《後三國石珠演義》·《繪圖今古奇聞》·《繡像大明正德
 皇遊江南傳》·《廻文傳》·《增評繪圖石頭記》·《紅樓夢》·《紅樓夢
 補》·《紅樓復夢》·《後紅樓夢》·《續紅樓夢》·《補紅樓夢》·《紅
 樓夢影》·《增刻紅樓夢圖詠》·《儒林外史》·《鏡花緣》·《女仙外史》
 ·《瑤華傳》·《快心編》·《再生緣傳》(五美緣)·《品花寶鑑》·《花
 月痕全書》·《青樓夢》·《反唐四望亭(綠牡丹)》·《玉嬌梨》·《清夜
 鐘》·《萬花樓傳》·《粉粧樓》·《兒女英雄傳》·《七劍十三俠》·《七
 俠五義傳》·《忠烈俠義傳》·《忠烈小五儀》·《忠烈續小五義》·《英
 雄大八義》·《小八義》·《雪月梅傳》·《繪圖施公案演義》·《施案奇
 聞》·《彭公案全傳》·《續彭公案》·《于公案》·《劉公案》·《原本
 海公大紅袍傳》·《說唐演義》·《說唐前傳》·《說唐後傳》·《繡像說
 唐小英雄傳》·《二十四史通俗衍義》·《會真演義》·《繪圖唐史通俗
 演義》·《繡像神州光復志演義》·《洪秀全演義》·《昇仙傳演義》·《後
 七國樂田演義》·《清史通俗演義》·《異說五虎平西珍珠旗演義狄青前
 傳》·《好逑傳》·《平山冷燕》·《濟公全傳》·《繡像四續濟公傳》·
 《繡像評演前後濟公傳》·《再續濟公傳全部》·《第十才子書白圭志》
 ·《綠野仙跡》·《希夷夢》·《錦香亭記》·《蓮子瓶全傳(銀瓶梅)》·
 《萃忠全傳》·《繡像二度梅全傳》·《英雲夢傳》·《樵史通俗演義》·
 《吳三桂演義》·《西來演義》·《野叟曝言》·《太平天國演義》·《西
 湖佳話》·《西湖拾遺》·《爭春園全傳》·《繪芳錄》·《雙奇緣全傳
 (繪圖雙鳳奇緣)》·《善惡圖全傳》·《海上中外青樓春影圖說》·《檣
 杌間評全傳》·《女才子傳》·《二十載繁華夢》·《繪圖三公奇案》·《萬
 年清奇才新傳》·《三合明珠寶劍全傳》·《海上繁華夢新書》·《第九
 才子書平鬼傳》·《金臺全傳》·《玉支磯》·《南溪演談》·《醒風流》
 ·《引鳳簫》·《畫圖緣》·《繡像第十才子駐春園》·《聖朝鼎盛萬年清》
 ·《第九才子書捉鬼傳》·《逸史搜奇一百四十家小說》·《繡像李翠蓮
 施釵》·《燕王掃北全傳》·《繪圖新出情天劫小說》·《永慶昇平前傳》
 ·《繪圖前後七國志演義》·《繪圖二才子義風月傳》·《繪圖繪圖巧奇
 冤全傳》·《繪圖平面涼全傳》·《呂祖全前》·《龍圖公案》·《包公演
 義》·《繪圖包龍圖判斷奇冤》·《五雷陣全傳》·《繪圖宋史通俗演義》
 ·《鬧花叢》·《包閻羅演義》·《繡像繪圖兩晉演義》·《繪圖民國新漢

演義》·《啖蔗》·《彭公清烈傳》·《五虎平南狄青演義》·《天下才子必讀書》·《文明小史》·《夢中緣》·《隔簾花影》·《唐宋百家小說》·《五色石》·《人中畫》·《留人眼》·《醒世因緣》·《肉蒲團》·《玉樓春》·《艷情快史》·《艷史》·《杏花天》·《戀情人》·《燈月緣》·《陶情百趣》·《巧聯珠》·《金雲翹傳》·《春柳鶯》·《鳳簫媒》·《春風眼》·《河間傳》·《巫夢緣》·《定情人》·《驚夢啼》·《賽花鈴》·《五鳳吟》·《蝴蝶媒》·《飛花艷想》·《催曉夢》·《吳江雪》·《兩交婚傳》·《鳳凰池》·《歸蓮夢》·《情夢柝》·《夢月樓》·《麟兒報》·《破閑談》·《八洞天》·《跨天虹》·《鴛鴦影》·《錦疑團》·《一片情》·《再求鳳》·《快士傳》·《紅隣幾雜誌》·《瓦史》·《韓魏小史》·《桃花影》·《覺夢雷》·《鳳儀亭》·《春苑記》·《玉殿生春》·《梅玉傳奇》·《定鼎奇聞》

* 戲曲 - 19 :

《西廂記》·《桃花扇》·《醉菩提》·《紅樓夢曲譜》·《琵琶記》·《長生殿》·《牡丹僊》·《牡丹亭》·《四聲猿》·《荊釵記》·《元人百種曲》·《笠翁傳奇十種》·《蔣士銓著九種曲》·《古今雜劇》·《盛明雜劇》·《薩真人夜斷碧桃花雜劇》·《南柯夢記》·《邯鄲夢記》·《伍倫全備記》

* 단사 목록 :

《繡像義妖傳》·《繡像天寶圖》·《珍珠塔》·《海公大紅袍》·《混元盒全傳》·《新刻夢中緣》·《四海棠全傳》·《繡像英雄淚國事悲全集》·《金鐘傳》·《繡像海公大紅袍全傳》·《梁山伯傳》·《繡像第一奇書》·《鍾情傳》·《繡像碧玉獅傳》·《像雙珠鳳全傳》·《繡像玉連環》·《繡像八仙緣》·《繡像九巧傳》·《繡像說唱》·《玉堂春》·《龍鳳配再生錄》·《六月雪》·《繪圖說唱五彩蓮(膠州傳幼園編)》·《繪圖前笑中緣金如意》·《繡像快活林》·《繪圖十粒金丹》·《繪圖香齡串》·《繪圖筆生花》·《新刻玉釧緣全傳》·《二十五史彈詞集註》·《繡像小人義》·《繡像水晶球》·《繡像說唱麒麟豹全傳》·《繡像芙蓉洞全傳》·《繡像雙珠鳳全傳》·《新刻秘本唱口雙珠球全傳》·《繡像八美圖》·《新刻女日記故事二十四孝圖說》·《繪圖巧合奇冤全傳》·《一箭緣》·《玉鴛鴦》

* 고사 목록 :

《繡像三公安鼓詞全傳》·《繡像包公安鼓詞全傳》·《繡像汗衫記鼓詞全傳》·《繪圖西羌國鼓詞》·《繪圖鼓詞巧合奇冤》·《新編袁世凱皇帝夢說唱鼓詞》·《說唱歐州戰事記鼓兒詞》·《繡像新刻吳越春秋》·《新刻千里駒說唱鼓詞》·《征東傳鼓詞》·《繡像五龍傳》·《新刻于公案》·《繪圖正續紫金鐲鼓詞》·《繡像紅淚傳鼓詞》·《羅通掃北鼓詞》·《綠牡丹鼓詞》·《西廂記鼓詞》·《西遊記鼓詞》·《薛剛反唐鼓詞》·《小八義鼓詞》·《二度梅鼓詞》·《臨城大劫案鼓詞》·《前七國志鼓詞》·《錦上花》·《韓湘子上壽》·《打黃狼》·《後娘打孩子》·《李方巧得妻》·《賣油郎獨占花魁》·《四見上工》·《嘉慶私訪》·《宏碧緣初集》·《金陵府》·《金陵府歸西寧》·《金鐲玉環記》·《金鞭記》·《唐書秦英征西》·《大破孟州》·《道光私訪》·《滿漢鬪》·《蜜蜂記》·《鳳凰山》·《北平府》·《向響馬傳》·《飛波島》·《三國志鼓詞》·《三金鎮》·《三省莊》·《四唐秘史》·《宣統二次登基》·《繡鞋記》·《十二寡》·《婦征西》·《雙鎖山困龍傳》·《雙釵記》·《雙鑣記》·《楊貴妃全傳》·《楊金花爭帥》·《楊文廣征西》·《楊州府》·《鸚哥記》·《蓮花盞》·《英雄大八義》·《五鋒會》·《玉盃記》·《李翠蓮施釵記》·《瓦崗寨》·《王哥賣豆腐》·《王永江全傳》·《銀合走國》·《紫金鐘》·《張飛賣肉》·《後七國志鼓詞》·《戰北原擊祁山》·《定唐昇仙傳》·《秦瓊打擂》·《秦英征西》·《蔡鏢再造共和史》·《綵雲球》·《打天門陣》·《天竺國傳》·《青峰嶺》·《清官斷》·《打登州》·《太原府》·《通州霸》·《敗子回頭》·《汗衫記》·《呼延慶征南》·《呼延慶打擂雙鑄記》·《紅旗滿》·《蝴蝶盃》·《紅燈記》·《紅梅記》·《紅風傳》·《回龍傳》·《回盃記》·《花本蘭征北》·《皇章充軍》·《香蓮帕》

이상은 현재 필자가 조사한 자료로 국내에 유입된 약 460여 종의 작품 가운데 오직 국내 고전문헌기록에만 언급되어 있을 뿐 실제 판본은 존재하지 않거나 아직 발굴하지 못한 판본도 대략 100여 종이나 된다. 이러한 작품은 향후 연구가치가 높은 작품이라 판단된다. 또 희곡은 의외로 19종 정도 밖에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탄사와 고사는 다량이 국내에 소장되

어 있으며 대부분 박재연이 소장하고 있다.

(2) 번역목록

조선시대 국내에서 번역된 중국고전소설은 약 68종이나 된다. 번역본 소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書名 | 翻譯版式 | 翻譯樣相 | 翻譯時期 | 文體 | 所藏處 |
|------------|--|---------------------------------|------------------------------|------|--------------|
| 列女傳 | 申珽·柳沆翻譯, 柳耳孫寫, 李上佐畫 | 中宗38年本未確認, 그외: 坊刻本(1918年, 太華書館) | 中宗38年癸卯(1543年) | 文言 | 失傳 |
| 古押衙傳奇(無雙傳) | 1冊(23장), 8行22-32字. | 原文充實한完譯(直譯) | 朝鮮(1879), 歲在己卯三月姪世本 | 文言 | 金東旭(羅孫文庫) |
| 太平廣記諺解 | 樂善齋本:9卷9冊, 13行23-25字, 木寬本:5卷5冊(缺冊1卷:延世大), 10行25字·27.5×17.5cm | 金一根本(先譯本)· | 約1566年~1608年, 樂善齋本은(18~19世紀) | 文言 | 樂善齋, 金一根(木寬) |
| 太原志 | 4卷4冊, 29.1×15.6cm, 10行20~25字內外, 中國原典逸失 | 국문고소설로 보는 견해도 있음 | 未詳 | 文言 | 樂善齋 |
| 吳越春秋 | 1冊(15장), 筆寫本, 31.4×15.6cm, 無界, 13行字數不定. | 部分省略, 直譯 | 조선후기 | 文言 | 金東旭(羅孫文庫) |
| 미비전(梅妃傳) | 1冊筆寫本, 29.2×20.5cm, 半葉13行字數不定. | 未詳, 부록: 당고종무후던 | 조선후기 | 文言 | 雅丹文庫(韓火財團) |
| 紅梅記 | 太平廣記 翻譯本 簿錄, 綠衣人傳 改編本 | 詩評省略, 縮約意譯 | 18世紀末 | 文言 | 藏書閣 |
| 薛仁貴傳 | 4卷4冊(中央圖), 2冊(殘本:嶺南大), 3冊(殘本:梨花大) | 翻譯<<薛仁貴征遼事略>>, 有出版 | 朝鮮後期 | 白話通俗 | 中央圖書館等 |
| 水滸傳 | 4冊·9冊(梨花女大), 3冊(金東旭:安城坊刻本) | 坊刻本, 其他:部分翻譯 | 朝鮮後期 | 白話通俗 | 梨花女大, 金東旭等 |

| | | | | | |
|------------|--|---------------------------|-------------------------------------|------|-----------------------|
| 三國志演義 | 39冊(樂善齋本), 38冊, 30冊, 27冊(28×19.5cm), 20冊, 17冊等 多數, 版式各不同, 宮體 | 完全翻譯, 部分翻譯, 翻案等 | 初譯: 英正祖(추정) 後譯: 己未(1859年等) | 白話通俗 | 中央圖書館, 奎章閣, 樂善齋, 金東旭等 |
| 殘唐五代演義 | 5卷5冊·30.4×22cm·10行25字內外·翻譯《殘唐五代史演義》 | 詩評省略·部分省略·宮體 | 朝鮮末期 | 白話通俗 | 樂善齋 |
| 大明英烈傳 | 8卷8冊, 29.2×20.9cm, 10行21字內外, 6冊(朴順浩), 優雅한 宮體 | 部分省略, 原文充實 | 約18世紀翻譯, 19世紀轉寫 | 白話通俗 | 樂善齋, 朴順浩等 |
| 武穆王貞忠錄 | 12卷12冊(殘本3·4·5·9·11), 29×23.3cm, 12行18字內外, 翻譯《大宋中興通俗演義》 | 直完譯(부분생략), 刻英嬪(英祖後宮)之印章 | 18世紀(推定) | 白話通俗 | 樂善齋 |
| 西遊記 | 3冊, 5冊, 12冊, 2冊本等 殘本多數, 坊각본과舊活字本 | 坊刻本, 其他: 部分翻譯, 翻案等 | 朝鮮後期 | 白話通俗 | 中央圖書館等 |
| 列國志 | 42卷42冊(影印本: 日本), 17冊(29.6×22cm, 春秋列國志, 中央圖書館), 30冊(嶺南大, 殘本7冊) | 詩評省略, 原文充實, 其他: 部分翻譯, 宮體 | 約1600年代中後期, 後轉寫本 | 白話通俗 | 中央圖書館, 嶺南大, 趙潤濟 外 |
| 包公演義 | 9卷9冊, 29×20.7cm, 1 1行24~26字內外, 翻譯《龍圖公案》(약간 흘림체의 필사본) | 原文充實(100回中81回翻譯) | 約19世紀 初推定 | 白話通俗 | 樂善齋 |
| 封神演義(서주연의) | 25卷25冊, 32.8×22.8cm·11行字數不定·註雙行·紙質: 楮紙 | 縮約意譯 | 約1728年 以前 | 白話通俗 | 樂善齋 |
| 西漢演義 | 16卷16冊, 35×21.3cm(中央圖), 32.6×22.2cm(高麗大, 1895年), 29卷10冊(34.5×22cm, 奎章閣), 4卷4冊(장서각, 全漢志傳의 部分翻譯) | 詩評省略, 原文充實, 其他: 部分翻譯, 翻案等 | 朝鮮後期 최초번역기록: 吳希文(1539~1613)의 瑣尾錄 | 白話通俗 | 中央圖書館, 奎章閣, 高麗大, 藏書閣等 |
| 東漢演義 | 6卷6冊, 35×23.2cm | 添削 심한 縮約翻譯 | 朝鮮後期 | 白話通俗 | 中央圖書館 |

| | | | | | |
|------------|---|--------------------------------------|--|----------|------------------------------|
| 平妖記 | 9卷9冊(樂善齋), 33.4×22.5cm, 10行20字內外, 2冊(金東旭, 30×19.2cm, 殘本卷3.5) | 翻譯:馮夢龍 40回本, 縮約 意譯 | 約1835年以 前翻譯, 以後 轉寫 | 白話 通俗 | 樂善齋, 金東旭 |
| 仙眞逸史(禪眞逸史) | 15冊(殘本:11行22字), 21冊, 32×21.7cm, 10行19~21字內外. 仙眞은 禪眞의 誤記. | 詩評省略, 縮 約意譯 | 約18~19世 紀 | 白話 通俗 | 樂善齋 |
| 隋煬帝艷史 | 宮體, 延世大本 1冊, 綠雨堂本 1冊 落帙 | 詩評省略, 縮 約意譯 | 約18世紀中 葉以前 | 白話 通俗 | 延世大等 |
| 隋史遺文 | 12卷12冊, “說唐”系統의 소설, 에스틴구장본 | 詩評省略, 縮 約意譯 | 19世紀初 | 白話 通俗 | 베제르부 르크 (러시아) |
| 東度記 | 100회중 40회 번역, 5책. 번역본은 동유괴로 되어 있음 | 생략과 축약이 심함 | 19세기 후반 번역 추정 | 白話 通俗 | 베제르부 르크 (러시아) |
| 開闢演義 | 5冊(奎章閣), 4冊(延世大), 궁서체 | 原典에 충실, 部分省略 | 18世紀로 推 定 | 白話 通俗 | 奎章閣 等 |
| 孫龐演義 | 5卷5冊, 30.3×21.2cm, 11行20~29字, 刻英嬪(英祖後宮)之印章 | 原文充實, 宮 體楷書 | 約18世紀中 期筆寫 | 白話 通俗 | 樂善齋 |
| 唐秦演義 | 13冊:33.5×22.5cm, 6冊:29×21cm, 原本:大唐秦王詞話, 16冊本(日本), 舊活字本 울지경덕실기(당진연의 부분 발췌) | 縮約, 轉寫 | 朝鮮後期 | 白話 通俗 | 樂善齋, 日本 등 |
| 南宋演義 | 7卷7冊(49回), 22.8×30cm, 11行26字內外, 本名:《南宋志傳》 | 原典에 충실한 翻譯(부분 縮 約), 丙申季秋 筆寫 | 約1776년 혹 은 1836年頃. (約18世紀 推定) | 白話 通俗 | 李謙魯 (현 중한 번역문화 연구소) |
| 北宋演義 | 5卷5冊, 31.2×22.8cm, 翻譯《大字足本北宋楊家將》 | 原文에 충실한 精密的 翻譯 | 18世紀 翻譯 本の 轉寫本 約18世紀 (推定) | 白話 通俗 | 樂善齋 |
| 南溪演談 | 3卷3冊(1卷落帙), 明太祖建國後事件描寫(原本未詳) | 母本未詳(국문소설로 보는 견해도 있음) | 朝鮮後期 | 白話 通俗 | 樂善齋 |

| | | | | | |
|----------|---|---------------------|---------------------------|------|-----------------|
| 剪燈新話 | 9篇(전체중 9篇만 翻譯, 151面), 8行26字內外, 民間에서 翻譯 轉寫된 | 詩詞까지 빠진 없는 충실한 번역 | 18世紀末-19世紀初 | 文言 | 단국대 |
| 娉娉傳(聘聘傳) | 全5冊中 4冊存(卷2.3. 4.5), 28×20cm, 12行28字內外 | 原本未詳, 剪燈餘話卷5(類似) | 約18世紀初期 | 文言 | 樂善齋 |
| 型世言 | 4冊(殘本:3.4.5.6. 總15篇), 28.8×21.6cm, 12行26字內外, 형세언의 부분번역인 朱仙傳도 樂善齋에 따로 소장 | 詩評省略, 縮約意譯 | 約18世紀頃 翻譯, 轉寫 | 白話通俗 | 樂善齋 |
| 今古奇觀 | 全40篇中 20餘篇翻譯, 回別翻譯出版 | 翻譯(부분 생략)·翻案 | 朝鮮末期, 日帝時期 | 白話通俗 | 高麗大, 樂善齋 等 |
| 花影集 | 9卷9冊, 一名: 卍방삼의던(劉方三義傳), 태평광기 번역본 부록 | 詩評省略, 縮約意譯 | 18世紀末 | 文言 | 藏書閣 |
| 後水滸傳 | 12卷12冊, 28.1×20cm, 10行22字內外, 6冊(申龜鉉) | 詩評省略, 完譯에 接近, 並行直意譯 | 約18~19世紀 | 白話通俗 | 樂善齋, 申龜鉉 等 |
| 平山冷燕 | 10卷10冊(中央圖書館), 28.6×19.6cm, 10行19字, 3卷3冊(樂善齋, 28.6×22.4cm), 4卷4冊(奎章閣) | 詩評省略, 原文充實, 意譯爲主 | 約18世紀推定 | 白話通俗 | 中央圖書館, 樂善齋, 奎章閣 |
| 玉嬌梨傳 | 下卷(11~20回) | 詩評省略·原文에 접근한 意譯爲主 | 朝鮮末期 | 白話通俗 | 高麗大 |
| 樂田演義 | 筆寫本, 孫龐演義의 續作, 18回 99張 | 부분 생략, 부분번역, 意譯 | 大正7年(1918年) 廣益書館 發行(舊活字本) | 白話通俗 | 하버드대 |
| 錦香亭記 | 7冊(奎章閣, 22×17cm, 10行14字內外), 1冊(高麗大:25.6×17.5cm, 10行18字內外) | 省略, 縮約意譯, 有翻案, 坊刻本 | 1877年筆寫 | 白話通俗 | 奎章閣, 高麗大, 中央圖等 |

| | | | | | |
|------------|--|----------------------------|----------------|------|--------------|
| 醒風流 | 7卷7冊, 26.2×19.1cm, 10行17~20字內外, 原名: 醒風流傳奇. (일찍이 번역한것을 후에 轉寫하여 묶은 것으로 보임) | 詩評省略, 原典에 近接한 意譯 | 約18世紀推定 | 白話通俗 | 樂善齋 |
| 玉支機 | 4권4책 20回, 27×19.5cm, 四周雙邊, 有界, 上下花紋魚尾, 宮體 | 直譯을 피하고 縮約翻譯 | 約18世紀推定 | 白話通俗 | 延世大 |
| 畫圖緣 | 3卷3冊(卷之一 現存) | 부분 생략, 意譯爲主 | 朝鮮後期 | 白話通俗 | 文友書林 |
| 好述傳 | 18回4冊(28.4×18.7cm), 4冊(梨花女大:29.5×18.3cm, 12行29字) | 翻譯:義俠好述傳, 詩評省略. 原典에 近接한 意譯 | 約18世紀~19世紀翻譯轉寫 | 白話通俗 | 奎章閣, 梨花女大 |
| 快心編 (醒世奇觀) | 32卷32冊, 28.2×18.8cm, 10行字數不定, 無郭, 無絲欄 | 詩評省略, 縮約과 直譯爲主, 集體翻譯 | 朝鮮後期 | 白話通俗 | 樂善齋 |
| 隋唐演義 | 10卷10冊 | 未詳, 另:後印本 | 朝鮮後期 | 白話通俗 | 奎章閣 |
| 女仙外史 | 45卷45冊, 28.8×18.8cm, 10行17字, 10冊(國民大) | 詩評省略, 完譯本 | 約1880年前後 | 白話通俗 | 樂善齋, 國民大 |
| 雙美緣 | 24회, 駐春園小史의 翻案, 一名:第十才子書, 一名:쌍미기봉, 조선시대 필사본도 있을 것으로 추정 | 詩評省略, 翻譯과 翻案 並行 | 朝鮮末期 일제시대 | 白話通俗 | 淮洞書館 (1916年) |
| 麟鳳韶 | 3卷3冊, 29.7×19.5cm, 10行20字, 麟鳳韶는 引鳳簫의 誤記 | 詩評省略, 原文充實 | 18世紀 中半 | 白話通俗 | 樂善齋 |
| 紅樓夢 | 120冊中117冊(殘本), 28.3×18.2cm, 8行字數不定, 紙質:壯紙 | 注音對譯, 直譯爲主完譯本 | 約1880年前後 | 白話通俗 | 樂善齋 |
| 雪月梅傳 | 20卷20冊, 28.3×18.8cm, 10行字數不定, 原文:孝義雪月梅傳 | 原文充實, 完譯本 | 約1880年前後 | 白話通俗 | 樂善齋 |
| 後紅樓夢 | 20卷20冊, 28.8×18.8cm, 9行27~28字內外, 無絲欄. 紙質:楮紙 | 詩評省略, 原文充實(完譯) | 約1880年前後 | 白話通俗 | 樂善齋 |

| | | | | | |
|--------|---|----------------------------|-----------------|------|----------|
| 粉粧樓 | 5卷5册 80回(完帙), 11行22字內外, 民間筆寫本(홀림체) | 原典에 충실하나 縮約이 많음 | 1906年으로 추정 | 白話通俗 | 朴在淵 |
| 合錦廻文傳 | 3卷. 宮體 | 原典에 충실한 번역 | 約18世紀 추정 | 白話通俗 | 東國大等 |
| 續紅樓夢 | 24卷24册, 27×18cm, 9行17字, 無絲欄, 無郭無版心, 楮紙 | 詩評省略, 原文充實, 意譯本 | 約1880年前後 | 白話通俗 | 樂善齋 |
| 瑤華傳 | 22卷22册(樂善齋), 27.8×19cm, 9行字數不定, 14卷7册(奎章閣) | 詩評省略, 原典에 近接한 完譯 | 約1880年前後 | 白話通俗 | 樂善齋, 奎章閣 |
| 紅樓復夢 | 50卷50册, 28.1×18.9cm, 9行17字, 無絲欄, 無魚尾, 楮紙 | 詩評省略, 原文充實(完譯), 直譯爲主, 部分意譯 | 約1880年前後 | 白話通俗 | 樂善齋 |
| 白圭志 | 1册 106張, 每面 11~15行, 4卷16回中 10回 중반까지 翻譯 | 부분번역 | 19世紀末~20世紀初 | 白話通俗 | 朴在淵 |
| 補紅樓夢 | 24卷24册, 28.1×19cm, 10行19字, 無絲欄, 無魚尾. 楮紙 | 詩評省略·原文充實·意譯本 | 約19世紀後半 | 白話通俗 | 樂善齋 |
| 鏡花緣 | 20卷中18卷(殘本:9·12), 31×20cm, 10行20字內外. 第一奇諺 | 意譯, 添削改譯 | 1835~1848年(洪羲福) | 白話通俗 | 丁奎福 |
| 紅樓夢補 | 24卷24册, 29×18.8cm, 9行19字, 紙質:楮紙 | 詩評省略, 意譯(一部分縮約) | 約1880年前後 | 白話通俗 | 樂善齋 |
| 綠牡丹 | 6册, 韓國學中央研究院(影印本), 別名:四望亭 | 直完譯, 原典에 충실하나 縮約도 보임 | 1900年初 | 白話通俗 | 趙東弼 |
| 忠烈俠義傳 | 40卷40册, 28×18.8cm, 10行17~18字, 一名:三俠五義 | 詩評省略, 原文充實, 完譯本 | 約1800年代中期以後 | 白話通俗 | 樂善齋 |
| 忠烈小五義傳 | 本篇30, 附錄1, 合31篇. 28.2×18.6cm, 10行字數不定, 16册(奎章閣) | 原文充實, 直譯爲主完譯本 | 約1880年前後 | 白話通俗 | 樂善齋, 奎章閣 |

| | | | | | |
|-----------|---|---------------------------------------|------------------------------|----------|----------|
| 珍珠塔 | 10卷10册, 28.1×19.9cm, 9行19字, 13卷5册(奎章閣:26.5×21cm, 10行22~24字), 一名:九松亭, 彈詞系統 | 奎章閣本(先行本), 樂善齋本은 奎章閣本을 가지고 轉寫한 것으로 추정 | 約1880年前後 | 白話通俗(彈詞) | 樂善齋, 奎章閣 |
| 再生緣傳 | 52卷52册, 28.2×18.8cm, 17行20字內外, 彈詞系統 | 直完譯本 | 約1880年前後 | 白話通俗(彈詞) | 樂善齋 |
| 梁山伯傳 | 白斗鏞編, 京城·翰南書林, 1920, 1册(24張), 木版本, 26×20.3cm, 四周單邊, 半郭:20.7×17.4cm, 有界, 14行字數不定, 上下向四瓣黑魚尾 | 直完譯本 | 조선말기 번역된 것으로 추정. 1920年(구할자본) | 白話通俗(탄사) | 嶺南大等 |
| 千里駒 | 4권2책, 청대 鼓詞翻譯本 | 添削이 가미된 翻譯 | 朝鮮末期 | 白話通俗 | 中央圖書館 |
| 繡像神州光復志演義 | 30卷30册 | 대부분 縮字譯爲主의 直譯·完譯本 | 1920年 前後 | 白話通俗 | 國立中央圖書館等 |

* 明대이전 소설

- (1)《列女傳》·(2)《古押衙傳奇》·(3)《太平廣記(諺解)》·(4)《太原志》·(5)《吳越春秋》·(6)《梅妃傳》

* 明대소설

- (7)《紅梅記》·(8)《薛仁貴傳》·(9)《水滸傳》·(10)《三國志演義》·(11)《殘唐五代演義》·(12)《大明英烈傳》·(13)《武穆王貞忠錄》(大宋中興通俗演義)·(14)《西遊記》·(15)《列國志》·(16)《包公演義》(龍圖公案翻譯)·(17)《西周演義》(封神演義)·(18)《西漢演義》·(19)《東漢演義》·(20)《平妖記》(三遂平妖傳)·(21)《禪真逸史》·(22)《隋煬帝艷史》·(23)《隋史遺文》·(24)《東度記》·(25)《開關演義》·(26)《孫龐演義》·(27)《唐晉[秦]演義》(大唐秦王詞話)·(28)《南宋演義》(南宋志傳)·(29)《北宋演義》(大字足本北宋楊家將)·(30)《南溪演談》·(31)《剪燈新話》·(32)《聘聘傳》(娉娉傳·剪燈餘話卷5와 類似함)·(33)《型世言》·(34)《今古奇觀》·(35)《花影集》

* 청대소설

(36)《後水滸傳》·(37)《平山冷燕》(第四才子書)·(38)《玉嬌梨傳》·
 (39)《樂田演義》·(40)《錦香亭記》(錦香亭)·(41)《醒風流》·(42)《玉
 支機》(雙英記)·(43)《畫圖緣》(花天荷傳)·(44)《好逑傳》(俠義風月傳)
 ·(45)《快心編》(醒世奇觀)·(46)《隋唐演義》·(47)《女仙外史》(新大
 奇書)·(48)《雙美緣》(駐春園小史의 翻案)·(49)《麟鳳詔》(引鳳簫)·
 (50)《紅樓夢》·(51)《雪月梅傳》·(52)《後紅樓夢》·(53)《粉粧樓》
 ·(54)《合錦廻文傳》·(55)《續紅樓夢》·(56)《瑤華傳》·(57)《紅樓
 復夢》·(58)《白圭志》·(59)《補紅樓夢》·(60)《鏡花緣》(第一奇諺)
 ·(61)《紅樓夢補》·(62)《綠牡丹》·(63)《忠烈俠義傳》·(64)《忠烈
 小五義傳》

* 탄사와 고사

(65)《珍珠塔》(九松亭)·(66)《再生緣傳》(繡像繪圖再生緣)·(67)《梁山
 伯傳》·(68)《千里駒》

* 일제시대 번역본 : 《繡像神州光復志演義》

국내 번역 및 번안된 중국고전소설과 희곡류 작품들은 전문대 박재연이
 주관하는 중한번역문헌연구소에서 대부분 교주 및 해제되어 출판되었다.
 출판된 책 수도 100여종에 이른다.

(3) 출판목록

조선시대 국내에서 직접 출판된 중국고전소설은 확인된 것만 22종이다.
 그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列女傳》·(2)《新序》·(3)《說苑》·(4)《博物志》·(5)《世說新語》
 (世說新語姓彙韻分)·(6)《西陽雜俎》·(7)《訓世評話》·(8)《太平廣記》
 ·(9)《嬌紅記》·(10)《剪燈新話句解》·(11)《剪燈餘話》·(12)《文苑植
 橘》·(13)《三國演義》·(14)《水滸傳》·(15)《西遊記》·(16)《楚漢傳》
 (西漢演義)·(17)《薛仁貴傳》·(18)《鍾離葫蘆》·(19)《花影集》·(20)《效
 顰集》·(21)《玉壺冰》·(22)《錦香亭記》

| 書名 | 版式 或 出版特記事項 | 出版記錄文獻 | 出版時期 | 文體 | 所藏處 |
|----------|---|-----------------------------------|------------------------|----|--------------------------------|
| 列女傳 | 申珽·柳沆翻譯, 柳耳孫寫·李上佐畫, 六曹中禮曹主管 | 稗官雜記卷4(魚叔權), 朝鮮王朝實錄(中宗, 卷101條) | 朝鮮中宗38年癸卯(1543年) | 文言 | 失傳 |
| 新序 | 劉向(漢)撰, 10卷2冊, 木版本, 31×20cm, 四周雙邊, 半郭:18.5×15cm, 有界, 11行18字, 內向黑魚尾, 紙質:楮紙 | 朝鮮王朝實錄(成宗24年12月29日條, 卷285條). 攷事撮要 | 朝鮮成宗23~24年(1492~1493年) | 文言 | 上卷: 啓明大, 下卷: 金俊植 等 |
| 說苑 | 劉向(漢)撰, 20卷4冊, 木版本, 26.9×17.8cm, 四周雙邊, 半郭:18.7×14.9cm, 有界, 11行18字, 註雙行, 內向一葉 花紙紋魚尾. 紙質:楮紙 | 朝鮮王朝實錄(成宗24年12月29日條, 卷285條). 攷事撮要 | 朝鮮成宗23~24年(1492~1493年) | 文言 | 金俊植 等 |
| 博物志 | 未詳 | 攷事撮要, 宣祖1年(1568年)刊行本 | 1568年 以前 | 文言 | 失傳 |
| 世說新語補 | 劉義慶(宋)撰, 劉孝標(梁)注, 劉辰翁(宋)批·何良俊(明)增, 王世貞(明)刪定, 王世懋(明)批釋, 鍾惺(明)批點·張文柱(明)校註, 總20卷7冊, 左右雙邊, 31×20cm, 半郭22.8×15.6cm, 10行18字, 有界, 註雙行, 內向黑魚尾, 序文:嘉靖丙辰(1556)....王世貞撰, 萬曆庚辰(1580)....王世懋撰, 乙酉(1585)王世懋再識, 萬曆丙戌(1586)秋日沔陽陳文燭玉叔撰, 紙質:楮紙, 顯宗實錄字 | 朝鮮王朝實錄. 世說新語姓彙韻分(後代覆印本, 姓氏別分類再編輯) | 朝鮮肅宗34年(1708年) | 文言 | 國立中央圖書館, 藏書閣, 高麗大, 延世大, 成均館大 等 |
| 唐段小卿西陽雜俎 | 李克墩·李宗準編輯, 10卷2冊, 四周雙邊, 29×16.8cm, 半郭18.4×12.5cm, 10行19字, 有界, 註雙行, 版心題:俎, 紙質:楮紙. 20卷3冊(後印) | 朝鮮王朝實錄(成宗 卷285條) | 朝鮮成宗23年(1492年) | 文言 | 成均館大 等 |

| | | | | | |
|--------|---|--|---|------|--|
| 訓世評話 | 李邊·柳希仁跋文, 上下2卷1冊, 黑魚尾, 10行17字, 白話文:10行16字 | 攷事撮要·宣祖1年(1568年)刊行本 | 1473年(未確認), 1480年·1518年(中宗13) | 文言 | 國立中央圖書館等 |
| 詳節太平廣記 | 成任編纂, 總50卷(現存7卷2冊), 四周單邊, 34×20.7cm, 半郭23.7×16cm, 10行17字, 上下黑口內向黑魚尾, 紙質:楮紙 | 四佳文集卷4.5(徐居正), 三灘集卷10(李承召), 慵齋叢話卷10(成倪)等 | 朝鮮世祖8年(1462年) | 文言 | 高麗大, 成均館大, 忠南大等 |
| 嬌紅記 | 未詳 | 朝鮮王朝實錄(燕山君63條) | 1506年頃(推定) | 文言 | 未確認 |
| 剪燈新話句解 | 尹春年訂正·林芑集解, 2卷2冊, 四周單邊, 10行20字(11行20字·10行18字·12行18字等 各版不一定), 有界, 註雙行, 紙質:楮紙 | 順菴集卷13(安鼎福), 攷事撮要(魚叔權), 校書館發行, 坊刻本等 | 朝鮮明宗4(1549), 明宗14(1559), 明宗19(1564), 1704等 | 文言 | 國立中央圖書館, 奎章閣等 |
| 剪燈餘話 | 國內失傳, 日本內閣文庫(後半部所藏) | 朝鮮王朝實錄(燕山君62條), 攷事撮要(魚叔權) | 約1568年以前, 淳昌刊行 | 文言 | 日本內閣文庫 |
| 刪補文苑植橘 | 2卷2冊, 四周雙邊, 木活字本, 27×17cm, 半郭21.4×13.2cm, 10行20字, 上二葉花紋魚尾, 紙質:楮紙, 第一校書館印書體 | 朴在淵發掘本 | 約1669年~1760年 | 文言 | 國立中央圖書館, 藏書閣等 |
| 三國演義 | 三國志通俗演義(朝鮮金屬活字本, 30.5×17.5cm·11行20字), 新刊校正古本大字音釋三國志(周曰校正, 13行24字, 丁卯耽羅開刊), 貫華堂第一才子書(20卷20冊, 卷首:金聖歎序, 讀三國志演義法25則, 凡例10則, 總目) | 朝鮮王朝實錄(宣祖卷3), 星湖僊說類選9(李瀾). 坊刻本多數 | 朝鮮明宗年間1560年初中期, 朝鮮仁祖5年(1627年), 肅宗年間(1674~1720年), 後印多數 | 白話通俗 | 李亮載, 國立中央圖書館, 奎章閣, 藏書閣, 高麗大, 延世大, 釜山大, 成均館大等 |
| 水滸傳 | 坊刻本(京本:2冊, 安城本:3冊) | 無 | 朝鮮末期 | 白話通俗 | 金東旭 |

| | | | | | |
|-----------|--|-----------------------------------|---------------------------|------|------------------|
| 西遊記 | 坊刻本(京本:2册, 孟冬華山新刊[現 紫霞門外廓]) | 無 | 丙辰年(1856年) | 白話通俗 | 法國 東洋語學校, 金東旭 |
| 楚漢傳(西漢演義) | 丁未本(2册, 丁未孟夏完南龜石里新刊), 戊申本(1册, 隆熙2年戊申秋7月, 西漢記完西溪新刊) | 無 | 丁未年(1907年), 戊申年(1908年) | 白話通俗 | 中央圖書館, 柳鐸一, 李能雨等 |
| 薛仁貴傳 | 坊刻本(京本:1册本[30張], 2册本[17張]) | 無 | 朝鮮末期 | 白話通俗 | 法國 東洋語學校, 李能雨 |
| 鍾離葫蘆 | 1册(30張), 朝鮮中後期木版本, 23×14cm, 半葉 7行15字, 內向二葉魚尾. | 於于野談(卷3-36學藝篇), 天君演義序文 | 17世紀中葉以前 | 文言 | 雅丹文庫(株式會社:韓火圖書館) |
| 花影集 | 昆陽郡守 尹景禧編纂·崔豈跋文·昆陽板刻(現 泗川地方) | 花影集序文 | 1586年 | 文言 | 日本 早稻田大 |
| 效顰集 | 四周單邊, 30.8×21.8cm, 半郭22.6×17.1cm, 12行21字, 有界, 白口內向黑魚尾. 紙質:楮紙 | 漢陽縣儒學教諭南平趙弼撰述 | 約1600~1650年(木版本, 後印) | 文言 | 日本逢左文庫 |
| 玉壺冰 | 1卷册, 四周單邊, 25.2×16.3cm, 半郭17.9×13.6cm, 9行17字, 有界, 白口內向黑魚尾, 紙質:楮紙, 卷末都穆跋文 | 9行18字本, 10行18字本, 10行20字本 等多數(後印本) | 庚辰10月日務安縣刊(大略1580) | 文言 | 奎章閣·中央圖書館, 高麗大等 |
| 錦香亭記 | 京板本2種(2卷2册本:由洞新刊, 3卷3册本:1860年前後本) | 無 | 約1847~1856年, 1860年前後(3권本) | 白話通俗 | 法國 東洋語學校, 李能雨 |

얼마 전 까지 필자는 조선시대 출판된 중국고전소설을 18종으로 분류하였으나 최근 《攷事撮要》를 분석하던 중 《新序》·《說苑》·《博物志》의 출판기록을 추가로 발견하였다. 또 국내 출판된 22종 중국소설 가운데 대부분은 그 原板本을 발굴하였으나¹¹⁾ 그중 《列女傳》·《新序》·

《說苑》·《博物志》·《嬌紅記》는 당시 출판되었던 원본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新序》·《說苑》의 국내 출판본을 찾아내어 발표하였다.¹²⁾ 현재 조선시대 출판본 중 아직까지 발굴하지 못한 판본은 《列女傳》·《博物志》·《嬌紅記》 등 3종이다.¹³⁾

2. 향후 연구방향

지금까지 비교문학 관점의 중국고전소설에 대한 연구, 즉 유입·평론·판본·번역·출판에 대한 연구는 박재연·최용철·김장환·민관동 등에 의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아직도 각 도서관의 서고와 문중 및 개인 소장자의 문헌들 가운데는 발굴하지 못한 작품들이 여전히 다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대한 총체적인 발굴과 연구가 아직도 필요한 실정이다.

필자 또한 향후 전국의 각 도서관과 서원 그리고 사찰 및 개인소장문고까지 수집범위를 확대하여 중국고전소설 및 희곡의 판본에 대한 수집정리 작업에 주안점을 두고 이러한 작업의 기초위에 희귀본의 발굴과 조선시대 국내 번역 및 출판된 문헌을 발굴정리 하는 작업에 주력할 예정이다.¹⁴⁾

-
- 11) 《전등여화》의 경우 국내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나 최용철이 일본 내각문고에서 일본 간행본과 합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대한 서지학적 분석과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최용철, 《전등삼중》(소명출판사, 2005). 하권 577쪽. 최용철, <剪燈餘話의明代刻本>, 《第三屆中國小說戲曲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臺灣: 里仁書局, 2008). 671-673쪽, 참고.
- 12) 최근에 발굴한 《신서》와 《설원》에 대한 연구는 《중국어문논역총간》 제 29집(2011년 7월)에 발표되었다.
- 13) 2007년 졸저의 《중국고전소설의 전파와 수용》(아세아문화사, 2007년)에서는 조선시대 유입서적이 330여 종, 번역본은 59종, 국내 출판본은 18종으로 밝혔다. 그러나 최근의 자료수집 결과 국내유입서적이 460여 종, 번역본은 68종, 국내 출판본은 22종으로 크게 늘어났다.
- 14) 2011년부터 2~3년에 걸쳐 출판될 학술전문서적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1. 中國古典小說 및 戲曲 研究資料 總集 - (2011년 國內出版)
 2. 中國古典小說의 朝鮮時代 翻譯本目錄 및 解題 - (2012년 國內出版)

이 분야에 대한 총체적 연구는 중국문학 연구의 영역을 넘어 국문학과 비교문학의 범주까지 그 학문적 시야를 넓히고 또 학문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실 이전에는 국문학자 및 한문학자들이 연구를 주도하였지만 1980년대 이후에는 중문학자들이 연구를 주도해왔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어느 한 분야의 학자들에 의하여 주도되어서는 학문적 한계가 있기에 오히려 중문학자와 국문학자 및 한문학자들의 공동연구가 더 바람직해 보인다. 즉 이러한 공동연구를 통하여 국문학과 한문학 및 중국문학에 두루 활용될 방대한 자료가 향후 국내외 학계에 널리 공유되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한 작품간 비교 연구로까지 연구 분야의 지평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VI. 結 語

筆者는 국내 중국고전소설의 연구사와 比較文學 觀點에서 중국소설의 연구개황 그리고 연구방법론 및 연구성과를 고찰해보았다.

최근에 몇몇 연구팀에 의하여 經·史·子·集 혹은 文·史·哲 위주로 국내 古書目錄을 정리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단순한 자료수집 정도에 그쳤고 고증에 따른 해제가 없었다. 또 체계적인 정리가 부족하여 漏落된 資料가 상당수 발견되었다. 이는 너무 廣範圍한 범위이기에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가 추진하는 프

3. 中國古典小說의 國內 出版本 整理 및 解題 - (2012년 國內出版)
4. 韓國 所藏 中國文言小說 版本과 解題 - (2013년 國內出版)
5. 韓國 所藏 中國通俗小說 版本과 解題 - (2013년 國內出版)
6. 韓國 所藏 中國古典戲曲(彈詞·鼓詞) 版本과 解題 - (2013년 國內出版)
7. 韓國 所藏 戲曲類(彈詞·鼓詞) 稀貴本 해제 - (2014년 國內出版)
8. 韓國 所藏 中國文言小說 稀貴本 해제 - (2014년 國內出版)
9. 韓國 所藏 中國通俗小說 稀貴本 해제 - (2014년 國內出版)
10. 韓國收藏中國古典小說和戲曲類版本目錄 - (2014년 中國出版)
11. 韓國收藏珍稀本中國古典小說的介紹和研究 - (2014년 中國出版)

로젝트는 中國古典小說 및 戲曲類 板本을 一目瞭然하게 발굴정리하고 해제를 수행함으로써 추후 연구자로 하여금 이러한 기초작업의 토대위에 심오한 연구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또 우리 古典文學의 형성에 많은 影響을 준 국내소장 中國稀貴本 고소설(희곡판본 포함) 판본도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이기에 이것을 배타시킬 수는 없다. 이것을 발굴하여 정리하고 해제를 가하는 작업도 國學研究分野의 중요한 범주이기에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이유이다.

필자는 이 분야의 연구방법론으로 대략 流入研究·評論研究·板本研究·翻譯研究·出版研究·研究史研究 등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 할 수는 없지만, 현시점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아직까지 흥미한 상태로 남아있는 原典批評의 연구가 좀 더 치밀해질 뿐만 아니라, 또 이러한 기반위에 比較文學的收容과 影響研究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 參考文獻 >

- 김태준, 《조선소설사》, 도서출판 예문, 1989.
 柳鐸一, 《韓國 文獻學 研究》, 亞細亞文化社, 1990.
 유탁일, 《韓國古小說批評資料集成》, 아세아문화사, 1994.
 이상익, 《한중소설의 비교문학적 연구》, 삼영사, 1983.
 劉世德主編, 《중국고대소설백과사전》,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3.
 오순방 외(譯), 《中國古典小說總目提要》(권1-5), 울산대출판부, 1993~1999.
 최용철, 《전등삼중》, 소명출판사, 2005.
 閔寬東, 《中國古典小說在韓國之傳播》, 中國 上海 學林出版社, 1998.
 閔寬東, 《中國古典小說史料叢考》, 亞細亞文化社, 2001.
 민관동·김명신, 《中國古典小說批評資料叢考》, 학고방, 2003.

- 민관동, 《중국고전소설의 전파와 수용》, 아세아문화사, 2007.
- 민관동, 《중국고전소설의 출판과 연구자료 집성》, 아세아문화사, 2008.
- 孫楷第, 《中國通俗小說書目》, 臺灣 廣雅出版社, 1983.
- 박재연, 《中國小說繪模本》, 강원대출판부, 1993.
- 朴在淵, 《조선시대 중국통속소설 번역본연구》, 한국외대 박사논문, 1993.
- 이재홍,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번역필사본 중국역사소설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2007.
- 최용철, <한국에서의 중국소설 연구의 現況과 課題>, 《中國學報》제38집, 1998.
- 최용철, <剪燈餘話의明代刻本>, 《第三屆中國小說戲曲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臺灣 里仁書局, 2008.
- 조관희, <한국에서의 중국소설 연구>, 《중국소설논총》제7집, 1998.3.
- 曹喜雄, <낙선재본 번역소설 연구>, 《국어국문학》제62-63 합병호, 1973.

<中文提要>

本人以《在韓國所藏的中國古典小說和戲曲版本之搜集整理及解題》爲主題申請的課題于2010年9月被選爲韓國教育部韓國研究財團的研究課題。此課題主要以發掘并介紹隱藏在韓國國內主要圖書館、書院及寺刹書庫裏的貴重的文獻(特別是中國古代小說和戲曲類版本)爲目的。作爲基礎工作,它具有重要意義。

研究方法可分爲六個類型:第一,傳入研究;第二,評論研究;第三,版本研究;第四,翻譯研究(朝鮮翻譯本);第五,出版研究(朝鮮出版本);第六,研究史研究。

根據2007年學術雜誌上的論文統計,傳入到韓國的中國古典小說有330多種。最近130多新資料的發掘,目前猛增爲460餘種。另外,朝鮮時代在韓國翻譯的中國古典小說約有68多種;在朝鮮半島境內進行出版的中國古代小

說也達22種。我們相信，隨着這次調查研究的進展將會發掘更多資料。

還有，這次中國古典小說及戲曲的國內版本現況研究，不是單純的版本分類工作，而是題解和分析。所以我們確信完成課題工作時，不僅對古典文學研究者，而且對韓國文學研究者、漢文學者、中文學者的比較文學領域將提供珍貴的研究資料。

주제어 : 比較文學, 中國古典小說, 研究史, 研究成果, 流入, 翻譯, 出版